



대안가정

통권35호 (계간) <http://www.daeanhome.org>


2.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3. 간디 계절학교 체험 보고
4. 성탄절 파티
5. 설날 풍경
6. 겨울캠프
8. '해맑은아이들의집' 이야기
10. '해맑은친구들의집' 이야기
12. 회비(후원) 내역
13. 재정보고 및 소식
16. 후원안내



▲ 해맑은아이들의 설날 풍경

한/가/정/에/서/한/아/이/를/보/살/핀/다/면...

발행인 이수형 / 발행처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발행일 2012. 2. 10
705-822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3동 2296-20번지(2층) / 전화 (053)628-2592 / 전송 (053)628-2595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며

김명희 사무국장

올해는 대안가정운동본부 창립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2년 4월 27일, 199명의 발기인들이 뜻을 모아 대안가정운동본부를 창립하였습니다.

2002년 창립시 가정위탁보호사업을 중심으로 하던 활동이 2008년부터 이동그룹홈 운영으로 확대되었고,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통해 입양에 이른 아동에 대한 지원까지 그야말로 친가정을 상실한 아동을 위한 대안가정의 전 영역에 걸친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동안 대안가정운동본부를 통해 보호받은 아동이 50명을 넘었고 또 앞으로 많은 아이들이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위탁보호아동의 대다수는 친가정으로 돌아갔고, 친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아동은 그룹홈으로 옮겨 자립할 때까지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책임지고 보살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의뢰상담의 대부분이 장기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인이라 가정위탁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가정위탁아동조차 단기보호를 전제로 한 처음의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장기보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만큼 어렵다는 반증이기도 하고, 한 번 해체된 가정을 다시 복원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는 대안가정운동본부에서 해맑은아이들의집에 이어 두 번째 그룹홈인 해맑은친구들의집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현재 해맑은아이들의집에는 남자 아동 6명이, 해맑은친구들의집에는 여자 아동 5명이 생활하고 있고, 그룹홈 당 2명의 선생님이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개소한 해맑은친구들의집이 정부지원을 받지 못해 매달 5백만원 정도의 운영비를 법인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또 올해는 두 그룹홈이 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그룹홈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더 넓고 쾌적한 주거공간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다.

하여 올해 창립 10주년 행사는 이동그룹홈 운영비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로 준비하려 합니다. 언젠가 했던 '행복나눔' 처럼 함께 모여서 맛난 밥도 먹고, 지역의 음악인들과 우리 아이들이 함께 하는 작은 음악회도 하려 합니다.

늘 느끼는 것이지만, 대안가정운동본부의 존속과 운영은 그 자체가 기적이라 할 만큼 놀랍고 감동스럽습니다. 마음을 다해 염려하고 아껴주시는 당신이 계시기 때문이지요, 기꺼이 달려와 도움을 주시는 당신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맘 흘려 번 소중한 물질을 기꺼이 나누어 주시는 당신이 계시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012년을 맞이하며 저희는 또 다시 마음을 가다듬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소중한 생명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섬기는 것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간디 계절 캠프를 다녀와서

김 태 호 (중1 / 해맑은아이들의집)

12월 24일부터 29일까지 5박 6일간 경남 산청에 있는 간디 계절 캠프를 다녀왔다. 자립심을 기르기 위해 이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또래 아이들과 함께 간디학교에 갔다. 나에게서는 이 모든 것이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다가왔다.

학교에 도착하니 많은 학생들이 모였는데 다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어서 서로 어색했지만 함께 저녁 식사도 하고 얘기도 많이 함으로써 조금씩 친해질 수 있게 되었다.

간디 학교에서 많은 기억들이 있지만, 숙소가 학교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위치해서 아침과 저녁의 서로 다른 모습이 좋았다. 아침에는 산골지역이라 공기가 정말 맑아 등산하는 것처럼 기분이 좋았고 밤에는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어 자연의 아름다움과 신비함을 체험할 수 있어 좋았다.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별자리의 별들을 처음 보았는데 사진으로 담아 올 수 없었던 점이 아쉬웠다.

또 한방박물관에 가서 허준의 일지와 옛날의 의학을 살펴보고 내 몸도 점검해 보았으며, 과자의 불필요성에 대해서도 배웠다. 우리가 자주 먹는 딸기우유나 바나나우유에는 설탕보다 몇 배 더 단 아스파탐이라는 조미료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

다음 날에는 휴대폰 고리를 만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차츰차츰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시간이 흘러 마지막은 장기자랑 시간이었다.

5박 6일간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이었다. 그러나 잠시라도 익숙한 도시를 벗어나 낯선 시골에서의 생활이 초스피드를 외치는 현 시대와 전자기기에 의존하는 생활을 뒤로하고, 자연과 어울려 자연에 순응하며 지낸 것이 나에게서는 색다른 경험이 되었고 마음속에 깊이 새긴 5박 6일의 시간이 되었다.

간디에서의 5박 6일

강 혜 윤 (초6 / 해맑은친구들의집)

처음에 간디학교를 혼자서 가야한다고 했을 때에는 '야, 혼자서는 눈치 보이고 외로운데...' 라는 생각 때문에 가기 전까지도 조마조마 했었다. 하지만 나는 원래 친구를 잘 사귀는 편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걱정을 털어내고 갔다.

도착하여 선생님과 모듬의 아이들을 만나니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내게 이런 모습들도 있었나? 할 정도로 남자아이들과 급속히 친해졌다. 물론 또래의 여자 아이가 없기도 했지만 이틀 동안 남자아이들과 지내보니 여자아이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묘한 느낌도 있었고 더욱 더 친하게 되어 나중에는 "형"이라는 소리까지 듣게 되었다.

그렇게 친구들을 사귀며 적응할 무렵 또 하나의 흥미 프로그램으로 도자기 체험을 하게 되었다. 찰흙으로 직접 물레를 돌려가며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이었는데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찍는 느낌으로 내가 배우가 된 듯 했다. 물론 예쁘게 만들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느라 애쓰신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새로운 경험과 함께 예쁜 도자기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5박 6일을 프로그램과 게임을 하며 지내다 보니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생님들과도 스스럼없이 대화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게다가 처음에는 빨리 집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곳에서 조금 더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번 간디 계절 학교를 다녀오며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꼭 이 학교에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만약 동생들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꼭 추천해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말 재미있었고 좋은 추억을 만든 행복했던 간디학교에서의 5박 6일이었다.



Merry Christmas Party!!

2011년 12월 22일, '해맑은아이들의집' 과 '해맑은친구들의집' 가족이 함께 모여 크리스마스파티를 했습니다. 키다리아저씨들은 이번 성탄에도 어김없이 아이들의 산타가 되어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에 정겨운 대화가 오가고 참 따뜻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과 소원카드 만들기를 통해 원하는 선물을 사전 조사하여 준비하였더니 아이들이 좋아하며 어찌나 활짝 웃어주던지 준비하느라 발품 판 이모들이 수고를 잊을 만큼 고마웠고, 선물 구입을 위해 십시일반 애써주신 분들도 함께 웃고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 맛있는 저녁식사



▲ 다혜·도윤이와 함께하는 배순균 이사님 가족



▲ 정겨운 시간들



▲ 레고 선물에 신난 도윤



▲ 두근대는 마음으로 선물을 열어보는 단비



▲ 성탄선물에 들뜬 태호

♪ 우리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

1월 19일은 「해맑은아이들의집」과 「해맑은친구들의집」아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설날 잔치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키다리아저씨들과 큰엄마네 가족이 함께 해 주셔서 여러 가지 설 음식도 만들어 보고 세 배도 하며 행복한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설날 풍경입니다.



▲ 꼬지 만들고 있는 아이들



▲ 동그랑땡이 구워지길 기다리는 아이들



▲ 밀가루 범벅이 되어가는 다혜, 단비, 혜현



▲ 닌텐도에 빠져있는 남자아이들



▲ 먹을 때는 먹는데 집중!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맑은 아이들의 겨울캠프

아이들의 방학과 함께 1월 10일부터 12일 까지 2박3일간 「해맑은아이들의집」과 「해맑은친구들의집」에서 경주로 음악캠프를 다녀왔습니다. 이번 캠프는 아이들과 이모가 한 조를 이루어 오카리나 연주에 열심이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대구와 경주를 오가는 경험도 해 보았습니다. 틈틈이 하이킹도 하며 자연속에서 뛰어놀고 악기 연주와 노래 연습에 매진하였던 겨울캠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기차를 기다리며...완전 신났어요^^



▲ 무사히 잘 도착하였어요^^



▲ 도착하여 첫 번째로 노래연습부터...



▲ 오카리나 연습도 합니다.



▲ 부진한 영찬이를 도와주는 혜은



▲ 오카리나의 선생님!! 다혜양...

Winter



▲ 오빠의 손 모양을 봐 주는 단비



▲ 저녁은 맛있는 바베큐 파티를~



▲ 노래방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 열심히 노래하는 여자 친구들



▲ 닌텐도 wii 게임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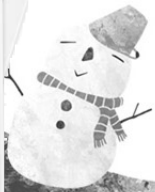
▲ 아주 열심히합니다.



▲ 마지막 날 펜션 주위를 돌아보며...



▲ 아쉬운 캠프를 마무리 합니다.



「해맑은 아이들의 집」 이야기

www.Sunnychild.org

▶ 준혁이 놀이방을 소개합니다.

우리 막내 준혁이를 위해 놀이방을 만들었어요. 조출하지만 준혁이에게는 처음 생긴 놀이방이 아닐까 싶네요. 방 한편에 정리해준 장난감과 책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웃기만 하는 준혁이를 보니 마음이 짠~했답니다. 준혁아! 조금 개구쟁이여도 괜찮으니 마음껏 놀아보렴~^^



▲ 준혁이의 놀이방

▶ 꼬꼬DAY와 반가운 손님들...

이번 꼬꼬DAY에는 다운양과 현이양 그리고 영남일보 노진실 기자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좋은일에 늘 함께 해주는 다운양과 현이양은 김밥과 떡볶이 등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줬고, 노진실 기자님은 꼬꼬DAY에 대한 좋은 기사를 써주셨답니다. 너무나 반가운 분들과 함께 해서 더 즐거운 꼬꼬DAY였습니다.



▲ 꼬꼬DAY와 반가운 손님들



▶ 재난대비 안전교육

재난대비안전교육 중 화재예방교육을 했습니다. 불에 대한 영상자료를 보고, 차트를 이용하여 소중한 불과 무서운 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퀴즈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재난안전교육 중



- 준혁이의 성장기 -

윤미란



▲ 어린이집의 만들기 시간

해맑은아이들의집에 기다리던 어린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김준혁... 27개월된 아이로 막내 도운이를 제치고 또 다른 막내로 형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이모의 사랑을 듬뿍 받던 도운이가 그 자리를 내어 주게 되었어요. 하루는 도운이에게 동생이 생기면 어떨 것 같냐는 질문에 쿨하게 좋다고 대답을 하더니만 처음 며칠은 지극정성으로 돌보더니 지금은 한결같이 괴롭혀서 준혁이가 제일 싫어하는 형이 되어 버렸어요.

준혁이는 다른 아이들에 비하여 눈이 크고 입이 작아 가만히 보고 있어도 예쁜 아이랍니다. 더구나 웃음도 많은 아이라 한 번씩 웃을 때면 형들이며 이모가 예뻐서 어쩔 줄 모른답니다. 그런데 눈물도 많아 순식간에 닭똥같은 눈물을 흘리는 등 우리집의 새로운 연기와 배우랍니다.^^

집으로 이사 온 후 얼마 뒤 준혁이에게 큰 일이 생겼어요. 소변에서 혈뇨가 나와 담당 선생님께서 종합병원에서의 검사를 의뢰하셨답니다. 검사를 위해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을 다니며 피검사, 24시간 소변검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위해 다녔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은 선천적으로 허약한 체질의 아이여서 그렇지 크게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소변에서 칼슘이 빠져나오긴 하나 지금 당장 손을 써야 하는 단계는 아니며 칼슘으로 혈뇨가 나올 수 있으며 앞으로의 경과를 지켜보아야 할 상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다만 천식이 있어 기침 감기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라 심적으로 당장 벌어진 자신의 상황들이 감당되지 않고 환경도 낯설어 나름 적응하는 방식이었나 봅니다.

지금은 여느 아이처럼 떼도 쓰고, 싫은 것은 싫다고 고개도 내 저을 줄 알고, 좋으면 깔깔깔 소리 내어 웃기도 한답니다. 처음에 형들이 예쁘다고 귀찮게하면 울기만 하더니 지금은 이모방으로 뛰어와 형이 괴롭혔다며 손가락질을 하기도 하고 형의 이름 한 글자를 이야기 하며 일러 주기도 한답니다.

한 글자씩이지만 말을 하며 가끔 "이모~"라고 또렷하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방을 휘젓고 뛰어 다니며 넘어져 멍이 없어지지 않지만 처음보다 많이 밝아지고 예뻐진 준혁이를 보고 모든 분들이 예쁘고 잘 생겼다고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준혁이에게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며 준혁이의 성장기 계속 계속 기대해 주세요요^^ 그리고 준혁아! 건강하고 예쁘게 자라자~~

「해맑은 친구들의 집」 이야기



▶ 환영합니다 혜원양!

11월 28일 혜원이가 새가족이 되었습니다. 혜원은 씩씩하고 미술을 좋아하는 2학년 아가씨랍니다. 첫날 환영파티에서 혜운이언니만 꼭 찍어 친해지고 싶다고 프로포즈를 하는 당돌한 면도 있어요, 며칠간의 적응기를 거쳐 이제는 목소리는 아름이만큼 크고, 먹는 것은 혜운이만큼 먹고, 엄살은 단비만큼 하는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혜원아! 앞으로도 우리 잘 살아보세~



▶ 삼연속 생일파티

11월 23일은 아름이, 26일은 단비, 28일은 다혜의 생일이었습니다.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소중한 1년 중 단 하루라, 세 번의 생일파티를 하게 되었지요. 생일선물도 나누고, '특별한 날엔 외식!'이라는 선언 아래 세 번의 외식으로 다들 기뻐지게 먹었던 일주일이었습니다.

단비, 다혜, 아름아! 아름다운 숙녀로 자라길 바래♡

▶ 영화 '량강도아이들' 보고왔어요

아이들과 영화관 나들이를 했습니다. 다른 관객들이 없어 우리가족이 대관한 것 마냥 편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스티커사진도 찍고, 지은이모의 진두지휘하에 악세사리 가게와 생필품 할인마트를 탐방했습니다. 다이소는 아이들에게 언제나 가고 싶은 곳의 1순위래요. ^ 그 동안 아껴왔던 용돈으로 머리끈도 사고 오랜만에 시내나들이에 다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 월동준비는 이렇게!

올 겨울 김치 걱정을 할 즈음, 대구시달서구여성단체협의회와 대성사에서 김장김치를 나눠주셨습니다. 냉장고 가득한 김치를 보니 어쩐지 든든하네요. 또 대구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아모레퍼시픽의 샴푸, 치약, 로션과 같은 생필품을 배분 받았습니니다. 달서구아름다운가게 자원봉사자분들도 생필품을, KCM 천연세제업체에서 세탁세제와 주방세제를 넉넉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창고도 냉장고도 가득하니 어쩐지 마음도 부자가 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 단비 이야기 -

설 윤 숙

단비의 첫인상은 그저 '신기하다'입니다. 조그만 여자애가 낯선 집에 들어서서는 제집처럼 누비며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살갑게 구는 것이.. '요것 봐라'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편으로는 해맑은아이들의집에서 이미 제가 6개월을 먼저 살았으니 나를 선입(?)의 자세로 탐색하고 있었습니다.

그건 단비도 마찬가지였는지 한식구가 되고 바로 다음날, 우린 제대로 한바탕 붙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말팔랑이에 천방지축 단비가 원피스를 입고 치마가 뒤집어지는 것도 모르고 계단을 오르내리기에 남동생들도 있고 위험하니 단정히 걸으라는 이모의 말에, 단비의 안색이 변하는가 싶더니 속사포같이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 이모가 뭐길래! 아빠한테 갈거대!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겠다. 혼자 밥 해먹고 살겠다. 밥 없으면 라면 먹겠다. 라면 없으면 굶어죽겠다. 이모가 준거 다 가져가라. 필요 없다..

거친 말투와 행동.. 한 시간을 쉬지도 않고 몰아붙이더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살갑게 대하는 당시의 단비가 얼마나 미웠는지 모릅니다. 이제 와서 하는 이야기지만, 저의 시기 이른 지적으로 도화선의 불씨를 당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아버지와 헤어지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사람들이 너를 보호해주겠다 안심하라 한들 그게 얼마나 믿음직했을까요. 그 이후로도 몇 번이나 단비와의 신경전이 거듭되었고, 여전히 사건사고를 몰고 다니는 단비..

오늘은 빨래를 널고 있는데 단비가 혜원이와 옆에서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같이 들여다보며 '이 사진은 단비가 처음으로 이모랑 같이 살게 된 날이네!' 했더니 '아, 이모! 혜원이한테 처음에 이모랑 있었던 일 얘기하지 마요!' 하고 다급하게 말을 막습니다.

가만히 다가와서 손을 잡거나, 눈이 마주치면 싱긋 웃으며 사랑해요를 연발하는 이 사고몽치. 단비의 사건사고를 일일이 나열할 순 없지만, 그럴 때마다 배신감에 얼마나 기운이 빠지는지 모릅니다. 단비의 마음에 맺힌 구멍을 어떻게 메울 수 있을까요. 단비에게도 이모에게도 어려운 숙제지만, 단비의 오늘이 어제보다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나중에 지금의 이모 나이가 된 단비에게 그동안의 속풀이를 실컷 해야겠습니다.

정단비씨! 기대하세요!

■ 회비 및 후원 내역 (2011년 1-12월)

이사회비

김규원	360,000
김사열	400,000
배성우	360,000
배순균	360,000
송광익	880,000
우병걸	600,000
우재식	300,000
이병희	1,230,000
이수형	2,400,000
이왕욱	400,000
이태원	600,000
정영숙	600,000
차학태	600,000

정회원 회비

권오걸	200,000
권일섭	120,000
김병희	240,000
김명섭	120,000
이국진	120,000
이문기	520,000
이용수	240,000
이재웅	240,000
이춘희	360,000
장종호	360,000

후원회원 회비

대원포장기계	480,000
도고건축사무소	480,000
동조철강	150,000
동진산업	240,000
메리초화재	2,297,000
신우유통	50,000
신화금기	240,000
연푸드	50,000
와이디테크	250,000
월성	330,000
정용성	270,000
평화교재	25,000
효선건설	60,000
TCN대구방송	850,000
TCN대구케이블방송	750,000
강경희	120,000
강한우	240,000
고 석	110,000
곽운섭	120,000
권영학	120,000
권영철	60,000
권용한	60,000
권응추	600,000
권점숙	120,000
권정애	120,000
권재혁	40,000
금자경	240,000
김경현	120,000
김관우	120,000
김광미	100,000
김광연	120,000

김 구	120,000
김기택	250,000
김길종	90,000
김낙원	120,000
김덕겸	120,000
김영희	110,000
김미라	10,000
김미자	120,000
김봉구	120,000
김상기	60,000
김수득	120,000
김순자	120,000
김시연	100,000
김쌍호	1,600,000
김영남	60,000
김영범	120,000
김영태	120,000
김영태	360,000
김원규	150,000
김원수	120,000
김원희	120,000
김은정	40,000
김은영	110,000
김은숙	90,000
김의룡	50,000
김이숙	360,000
김재수	120,000
김점순	50,000
김중환	120,000
김종열	60,000
김 진	80,000
김진석	120,000
김진수	120,000
김창규	120,000
김현애	60,000
김현익	120,000
김호근	60,000
김환준	120,000
김효선	240,000
김희호	50,000
나일웅	120,000
나경호	10,000
류보현	5,000
류은경	15,000
류정열	240,000
모나리	30,000
문수인	10,000
문옥희	120,000
문우경	120,000
박광립	240,000
박광수	130,000
박기호	240,000
박나연	120,000
박동영	70,000
박동준	120,000
박만근	120,000
박문욱	80,000
박미경	120,000
박미영	120,000
박범환	1,000,000
박병수	120,000
박성실	120,000
박성민	45,000
박순우	360,000
박승국	30,000
박신영	120,000
박연희	240,000

박옥란	120,000
박유민	45,000
박은진	120,000
박은순	110,000
박정식	200,000
박진구	360,000
박창현	360,000
박천훈	120,000
박혜숙	360,000
배명섭	120,000
배성훈	240,000
배총렬	70,000
배태순	240,000
백기웅	120,000
백성환	120,000
백종규	180,000
삼성목, 금평산업	110,000
서경희	240,000
서진철	600,000
손병현	55,000
송경진	50,000
송계우	200,000
송충환	50,000
송창섭	120,000
심금식	240,000
심형순	60,000
안병근	70,000
안상준	120,000
안지수	120,000
안화석	50,000
양재원	60,000
오길수	10,000
오세창	240,000
오찬철	60,000
오현주	120,000
우연조	120,000
위희탁	120,000
유은주	90,000
유정욱	120,000
윤순영	120,000
윤영철	120,000
윤정은	110,000
윤정희	120,000
은원수	120,000
이내호	650,000
이 담	600,000
이동욱	240,000
이동진	240,000
이동환	90,000
이미숙	120,000
이병호	60,000
이보경	120,000
이복순	50,000
이상희	120,000
이순일	120,000
이승미	110,000
이승찬, 정애경	500,000
이연생	240,000
이영찬	60,000
이영희	120,000
이옥화	120,000
이유미	60,000
이은형	10,000
이밀영	100,000
이지운	50,000
이재수	120,000

이정현	60,000
이주용	120,000
이지연	50,000
이진복	20,000
이진옥	240,000
이 창	120,000
이창훈	20,000
이철훈	120,000
이한주	20,000
이혜영	120,000
이혜진	60,000
이호용	240,000
임영진	120,000
임익성	60,000
임진규	35,000
임현락	10,000
장경은	110,000
장경철	120,000
장삼철	360,000
장운미	120,000
장호덕	120,000
전영평	120,000
전재현	160,000
전재호	10,000
전재혁	280,000
전준환	120,000
정경란	240,000
정미옥	480,000
정연기	2,200,000
정재국	120,000
정한교	110,000
정현경	70,000
정혜경	120,000
정희우	25,000
조영교	120,000
조재학	360,000
조정자	120,000
조행도	250,000
주은비	110,000
채승욱	120,000
채중해	120,000
천봉재	100,000
천종근	40,000
최경호	110,000
최봉진	25,000
최영선	150,000
최영재	50,000
최원창	360,000
최정숙	100,000
허다영	240,000
허정욱	240,000
허현열	220,000
한미숙	240,000
한은희	120,000
허만우	1,200,000
허유희	120,000
허해정	120,000
홍경자	120,000
홍동표	90,000
홍석진	120,000
홍후근	250,000

일반후원

금성유치원	100,000
대구지방번호사회	2,500,000

신한아름인포인트	584,827
이마트단체지원	193,099
해피빈후원금	77,100

특별후원

김명희	54,600
박진구	100,000
박한배	200,000
배순균	50,000
이국진	50,000
이대준	200,000
이병희	542,700
이수형	11,030,370
임인섭	1,000,000
함영삼	100,000

신한아름인후원자

강병락	17,044
김명희	177,000
김시범	22,300
김연정	10,000
김영화	30,000
김용학	80,000
김은영	19,536
김은정	4,712
김종안	70,000
김호형	24,823
김희성	6,330
신원경	1,405
양재남	50,000
이승모	19,636
이휘득	40,000
최석정	1,100
최종인	2,919
황춘식	8,022

그림후원

강안숙	60,000
구교청	70,000
김규원	20,000
김미경	120,000
김상대	100,000
김영범	120,000
김영철	50,000
김진태	50,000
김초자	300,000
김효정	20,000
대백선교문화재단	1,800,000
류지창	120,000
박범환	300,000
박석돈	100,000
박한배	10,000,000
서대현	240,000
우리복지시민연합	50,000
이대준	10,000,000
이미경	60,000
이병희	100,000
이수형	10,000,000
이승희	60,000
이정화	20,000

이충희	5,000
이태원	100,000
정영선	60,000
정소희	100,000
정영숙	100,000
정재석	120,000
정진호	100,000
조병영	100,000
한봉철	650,000
허영은	240,000
황윤선	90,000

▶ 해맑은아이들이집 후원

강은향	100,000
김근량	60,000
나형진	40,000
남부경찰서	100,000
배현석	100,000
범죄예방협의회	100,000
삼원근	1,400,000
사회복지공동모금회	140,000
삼영교회	200,000
성명초등학교	181,100
알파와이즈	300,000
이윤영	60,000
정용태	600,000
추윤혜	400,000
무명	50,000

▶ 해맑은친구들이집 후원

구교청	160,000
박주희	200,000
배순균	30,000
성명초등학교	125,000
이윤영	15,000

이정로	50,000
임인섭	180,000
최선주	50,000

▶ 물품후원 (10~12월)

〈해맑은아이들이집〉
또래 오래 후라이드 치킨
마가찜닭 찜닭, 김치
이왕옥 밀반찬,
포도 1상자,
라면 1상자, 의류
이수형 사과 2상자,
강정 1상자

설정근 김치 5상자
해발달밭식사원 5인분 떡국 3kg,
백세약국 관장약 아동의류 3세트
소화기정의학과 과자 새마을회 김치 2상자
도너스캡프 그룹홈의회
컵 4세트 3상자
미동교회 과일 3종, 빵
대구시청 자반고등어 2상자

〈해맑은친구들이집〉
달서구 아름다운가게 생필품
달서구청 한우국거리
배순균 사과, 배,
고구마
성명초등학교 한과
KCM 세제류

■ 대안가정운동본부 보고

(2012년 1월~12월)

세입			세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회비			54,889,670	사무비			44,062,775
회비	회비		54,889,670	인건비	인건비		31,921,320
	이사회비		9,000,000		급여		23,488,000
	정회원회비		2,320,000		상여금		2,917,000
	후원회원회비		40,222,000		퇴금및퇴직금		3,234,000
	특별회비		3,257,670	사회보험금		2,282,320	
후원금			66,433,033	업무추진비			1,488,080
후원금	후원금		66,433,033	기관운영비	기관운영비		450,000
	일반후원금		3,411,613		직책보조비		50,000
	그룹홈후원금		37,145,000		회의비		988,080
	음악회		25,876,420	운영비		10,653,375	
잡수입			636,731	여비	여비		1,004,700
잡수입			636,731		수용비		4,496,885
	예금이자수입		288,661		공공요금		906,900
	기타잡수입		348,070	제세공과금		3,260,920	
				차량비		743,000	
				잡비		240,970	
				사업비			21,412,170
				일반사업비			21,412,170
				상담사업		51,350	
				교육사업		108,000	
				대안가정지원		2,161,340	
				출판홍보사업		2,057,880	
				후원사업		12,225,250	
				총회 및 가족의 밤		2,206,860	
				그룹홈지원사업비		2,376,490	
				기타사업비		225,000	
전출금			53,420,682	전출금			53,420,682
전출금			53,420,682	해맑은아이들이집			10,571,764
				해맑은친구들이집			42,848,918
총계			121,959,434	총계			118,895,627
전년도 이월금			2,968,296	잔액			6,082,103
합계			124,927,730	합계			124,927,730

후원안내

꼭 대안가정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뜻은 공감하되 당장 실천할 수 없는 분들은 대안가정이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예금주 (사)대안가정운동본부

- 대구은행 : 068-05-005600-9
- 농협 : 718-01-176941
- 국민은행 : 602-01-0688-119
- 신한은행 : 100-018-271549

아동그룹홈은 7명 이내의 아이들이 2명의 선생님과 가족공동체가 되어 함께 생활하는 또 하나의 대안가정입니다.

■ 대안가정운동본부 소식

- 그룹홈협의회 실무자 회의 (2011. 10. 14)
- 그룹홈협의회 시설장 회의 (2011. 11. 11)
- 그룹홈협의회 실무자 회의 (2011. 11. 25)
- 그룹홈 평가사후관리 회의(2011. 11. 3)

지난해 그룹홈 평가 사후관리 위원인 김명희 사무국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그룹홈협의회 중양회 총회준비위원회의 (2011. 12. 12)

김명희 사무국장이 그룹홈협의회 중양회 총회와 관련하여 준비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 「해맑은아이들의집」 재정보고
(2011년1월~12월)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전입금			10,571,746	사무비			54,565,322
	전입금		10,571,746		인건비		48,209,570
		법인전입금	10,571,746			급여	37,044,750
후원금			4,257,200			상여금	4,280,000
	후원금		4,257,200			퇴직적립금	3,550,000
		지정후원금	1,187,200			사회보험부담금	3,334,820
		비지정후원금	3,070,000		업무추진비		139,000
보조금			67,576,000			직책보조비	75,000
	보조금		67,576,000			회의비	64,000
		인건비	38,368,000		운영비		6,216,752
		시설운영비	2,760,000			여비	551,880
		생계비	26,448,000			수용비	1,935,962
잡수입			113,661			공공요금	1,760,210
	잡수입		113,661			제세공과금	1,478,730
		예금이자	3,597			차량비	490,000
		기타잡수입	110,064	사업비			26,930,566
					운영비		17,056,416
						생계비	6,435,210
						수용기관경비	1,898,220
						피복비	1,569,420
						특별급식비	4,760,766
						의료비	209,800
						연료비	2,183,000
					교육비		4,146,240
						도서구입비	146,410
						학습지원비	2,786,530
						수학여행비	19,000
						학용품비	461,200
						교복비	26,000
						이미용비	250,000
						기타교육비	457,100
					사업비		5,727,910
						경제교육	1,250,000
						가족행빛나눔	1,919,990
						가족친화	768,880
						문화체험	933,040
						외부위탁교육	380,000
						심리상담및치료	476,000
					보조금 반환		8,665
						보조금 반환	8,665
총계			82,518,607	총계			81,504,583
전년도이월금			1,974,153	잔액			2,988,177
합계			84,492,760	합계			84,492,760

■ 「해맑은아이들의집」 소식

•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역량강화 워크숍
(2011. 10. 6)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주최한 매뉴얼 교육에 윤미란 보육사가 참석했습니다.

•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역량강화 워크숍
(2011. 11. 3 ~ 4)

대구해바라기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최한 종사자역량강화 워크숍에 고빛나 시설장과 윤미란 보육사가 2일에 걸쳐 참석했습니다.

• 남구청 지도점검 (2011. 12. 20)

남구청에서 지도점검차 해맑은아이들의집을 방문하셨습니다.

■ 아이들 소식

• 태호가아빠를 만났습니다.

(2012. 1. 21 ~ 25)

태호가 아빠와 함께 명절을 보내기 위해 천안까지 혼자서 버스와 기차를 타고 다녀왔습니다. 체중도 늘고 키도 커진 태호의 모습을 아빠가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 준희가아빠를 만났습니다.

(2011. 11. 5 ~ 6 / 12. 23 ~ 25 / 2012. 1. 21 ~ 25)

준희 아빠는 틈나는대로 준희를 만나며 신나게 놀아주셨습니다. 준희는 더욱 씩씩하게 자랐으면 하는 아빠의 바람으로 태권도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 동협이가아빠를 만났습니다.

(2011. 10. 29 ~ 30 / 2011. 12. 23 ~ 2012. 1. 1 / 2012. 1. 7 ~ 1. 25)

동협이가 방학기간을 아빠와 함께 보냈습니다. 아빠와 함께 치과와 놀이치료도 가고, 엄마를 만났습니다.

• 도윤이가엄마를 만났습니다.

(2012. 1. 21 ~ 25)

도윤이가 오랜만에 엄마를 만나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엄마는 도윤이와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즐겁게 지내려 했는데 도윤이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느라 신나게 못 놀았다고 하네요.

• 준혁이가엄마를 만났습니다.

(2011. 10. 22 ~ 23 / 2011. 12. 24 ~ 25 / 2012. 1. 21 ~ 1. 25)

준혁이가 엄마와 명절을 보냈습니다. 준혁이가 의사표현도 잘 하고, 의젓해졌다고 엄마가 좋아하셨습니다.

■ 「해맑은 친구들」의 집」 재정보고
(2011년 6월~12월)

세 입			세 출				
관	항	목	결산액	관	항	목	결산액
전입금			26,530,000	사무비			24,826,350
	전입금		26,530,000		인건비		18,103,450
	법외전입금		26,530,000		급여		15,098,000
후원금			922,200		상여금		1,920,000
	후원금		922,200		일용잡금		50,000
	지정후원금		577,200		사회보험부담금		1,035,450
	비지정후원금		345,000	업무추진비			148,000
입소자 부담금수입			9,688,360		직책보조비		40,000
	입소비용수입		9,688,360		회의비		108,000
	입소비용수입		9,688,360	운영비			6,574,900
잡수입			2,582		여비		309,550
	잡수입		2,582		수용비		4,783,730
	예금이자		2,582		공공요금		743,670
					제세공과금		266,600
					기타운영비		471,350
				재산조성비			925,760
					시설비		925,760
					자산취득비		925,760
				사업비			9,509,150
					운영비		5,566,680
					생계비		2,201,040
					수용기관경비		1,461,210
					피복비		435,230
					의료비		168,600
					특별급식비		1,128,870
					연료비		171,670
				교육비			1,464,670
					학용품비		270,490
					도서구입비		67,530
					학습지원비		562,600
					수학여행비		431,700
					이미용비		45,000
					기타교육비		87,350
				사업비			2,477,800
					경제교육		462,000
					가족행및나눔		739,300
					가족친화		135,800
					문화체험		107,200
					상담		693,500
					자립지원		340,000
총계			37,123,142	총계			35,261,260
이월금			0	잔액			1,861,882
합계			37,123,142	합계			37,123,142

■ 「해맑은 친구들」의 집」 소식

- 아동복지시설종사자역량강화 워크샵
(2011. 11. 3 ~ 4)

대구해바라기아동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주최한 종사자역량강화 워크샵에 설윤숙 보육사와 양지은 보육사가 2일에 걸쳐 참석했습니다.

■ 아이들 소식

- 해윤이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2011. 12. 20 ~ 21 / 2012. 1. 22 ~ 24)

해윤이 방학 중과 설 명절동안 아빠, 언니들을 만나 오붓한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 단비가 친척을 만났습니다.

(2012. 1. 20 ~ 24)

그동안 친척들을 많이 보고 싶어 했던 단비가 설 명절동안 친척집에서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 다혜가 엄마와 대안가정을 만났습니다

(2011. 11. 16 / 2012. 1. 22 ~ 24 / 2012. 1. 3 ~ 5)

다혜와 엄마 병문안을 다녀왔고, 설명절 동안 외숙모집에 다녀왔습니다. 1월 첫주에는 대안가정에 가서 대안가정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 해원이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2011. 12. 28 / 2012. 1. 21 ~ 24)

해원이가 그룹홈에 오고 처음으로 아빠를 만나 쇼핑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명절에도 아빠와 시간을 보냈습니다.

- 이름이가 아빠를 만났습니다.

(2011. 10. 15 ~ 16 / 2011. 12. 23 ~ 2012. 1. 1 / 2012. 1. 9. ~ 1. 25)

이름이가 방학기간을 아빠집에서 보내고 왔습니다. 아빠, 오빠와 시간을 많이 보냈고 엄마도 만났다고 합니다.

대안가정운동본부 후원회원 모집 안내문

(사)대안가정운동본부는 가정해체로 인해 친부모와 함께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친가정을 대신해서 양육할 대안가정을 찾아주고, 아이들이 대안가정에서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대안가정운동본부는 2002년 설립이후 50여명의 아이들에게 대안가정을 찾아주었고, 장기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는 아동그룹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 개소한 아동그룹홈 '해맑은아이들의집' 에서 2명의 선생님이 6명의 남자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2011년 6월에 새로 개소한 '해맑은친구들의집' 에서도 2명의 선생님이 5명의 여자아이들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직접 돌보고 있습니다.

(사)대안가정운동본부는 대부분 뜻을 함께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새로이 개소한 아동그룹홈으로 인해 월 4백만원 정도의 추가 운영비가 발생하여 기존 후원회원들의 기부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새로운 후원회원을 모시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자라 이 사회의 훌륭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질 것이며, 당신의 귀중한 후원이 한 생명의 미래를 위해 정말 가치있게 쓰여진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사)대안가정운동본부 이사장 이수형

※ 후원계좌 : 대구은행 068-05-005600-9 예금주 : (사)대안가정운동본부
(705-822) 대구시 남구 대명3동 2296-20 / www.daeanhme.org
T : (053)628-2592 / F : 628-2595

----- 절 취 선 -----

- 대안가정운동본부 후원회원 가입 신청서 -

CMS 자동이체 신청(직접 내용 기재)

성명 (기관명)	(인/서명)	후원금액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주소		출금은행	
이메일		출금일	<input type="checkbox"/> 5일 <input type="checkbox"/> 15일 <input type="checkbox"/> 25일
연락처		추천인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